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최장호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북중 무역 동향: 분석과 평가
3. 2024년 북중 무역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 2023년 상품수지는 -17억 1,161만 달러로 전년의 -7억 6,036만 달러 대비 125.1% 악화되었으나, 북한이 1~2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 202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벌이를 위한 임가공 원부자재(섬유·의류 원부자재), 민생용품(쌀·설탕), 농업용 자재(비료), 건축자재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섬유·의류 밀무역 재개, ② 여름 홍수를 대비한 관개수로 공사, ③ 양곡전매제 시행, ④ 살림집 건설, ⑤ 북러 군사협력과 전쟁 물자 생산이었음.
 -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을 기반으로 추정된 결과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는 2018~19년 대비 약 52.1%에 불과하여 수입의 회복폭(84.7%)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코크스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의 영향으로 제철 및 금속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 엔데믹 이후 대중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산업생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러 관계가 진전되었으나 제한적 군사협력에 불과하여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임.
 - 반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며, 해외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함.
- ▶ 2024년 북한 대중 무역의 향방은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수출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재와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물류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2024년 북중 무역의 규모는 북중 관계 개선과 육로 무역 재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UN 대북제재 강화(2017~19년)와 코로나19 국경봉쇄(2020~22년)로 수출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 즉 내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2023년 북한이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어느 수준으로 수출입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입이 중단되고 물자난이 발생하면서 산업생산도 대폭 감소하여 북한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2023년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북한이 국경간 이동을 정상화함에 따라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 여부와 규모, 또 그것이 산업생산 정상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급변한 대외여건]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가 부임(2023년 3월)하면서 북중 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북러 군사협력(7월)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중국이 북중러 3국 공조를 지양하면서 북한의 접경 물류와 무역 정상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코로나19 종식 선언(2022년 8월)과 함께 국경통제가 완화되었고,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가 부임하고 북중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면서 북중 무역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팬데믹 이전보다 북중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전승철(2023년 7월)을 맞이하여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교 역량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되었고, 중국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북중 대외 경제협력이 진척되지 못했고,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 [북중 무역 통계 발표] 지난 1월 말 발표된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북중 무역 총액은 23억 달러로 2022년 10억 3천만 달러 대비 2.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2018~19년)의 88.0% 수준에 불과하여 예상보다 낮은 수준임.

- 대중 수입은 20억 달러로 전년대비 대중 수출이 124.1% 증가하였으며, 대중 수출은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4% 증가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이 국경을 엄격히 관리한 것에 의한 기저 효과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입과 수출은 각각 84.7%, 136.3% 수준임.
 - 수입이 84.7% 회복에 그친 것은 북중 양국이 국경통제 전면 해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북한 → 중국의 육로 화물열차 및 트럭을 활용한 수출과 신의주-단둥 구간의 육로 화물트럭 운행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임.
 - 수출이 136.3% 증가한 것을 두고 북한의 산업생산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욱 나아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중 수출액 규모가 작아 변동폭이 컸고, 중화학·금속 등 핵심 산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가발·가수염·속눈썹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수출산업 전반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

- [북한 경제 진단] 이에 본고에서는 2023년 북중 무역 동향과 통계를 분석하여 북한의 무역 정상화 정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2. 북중 무역 동향: 분석과 평가

가. 북중 무역 여건 변화

- 2022년 북한의 공식적인 코로나 종식 선언(2022년 8월)과 함께 북중 무역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2023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물자 부족과 북한의 산업생산 감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으로 예상
- 북중 무역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경지역 통제는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국제전염병 위협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해 전면 개방을 할 수 없었거나, 국경 개방에 대해 양국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6월까지만 국경통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며, 7월부터는 추가 조치가 없었음.
 - 2023년 2월, 中 단둥 - 北 신의주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화물트럭 운행을 재개하였으나¹⁾ 中 → 北으로만 화물 이동이 가능하였고, 北 → 中으로는 화물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수의 제한적인 인원을 제외하고는 인력의 국경 이동이 불가
 - 5월, 中 단둥 - 北 신의주 구간은 화물트럭 운행 재개 없이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2회 이상으로 증편²⁾
 - 6월 말 북한의 세관이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추가 국경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³⁾
 - 이후 연말까지 추가 국경통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전면적인 국경개방을 위해서는 △ 中 단둥 - 北 신의주 구간에 화물트럭 운행, △ 北 → 中으로 육로 화물이동 허용, △ 여객용 열차와 버스 운행 재개, △ 인력의 국경 이동 통제 완화 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나. 무역 총액과 상품무역수지

- [무역 총액] 북한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전년대비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 [대중 수입] 대중 수입은 20억 35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4.1% 증가하였는데, 핵심 교역 구간인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에서의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2018~19년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못함.

1) 「중국 화물트럭, 훈춘 통상구 통해 이틀 연속 북한에 물자 운송」(2023. 2. 2.), MBC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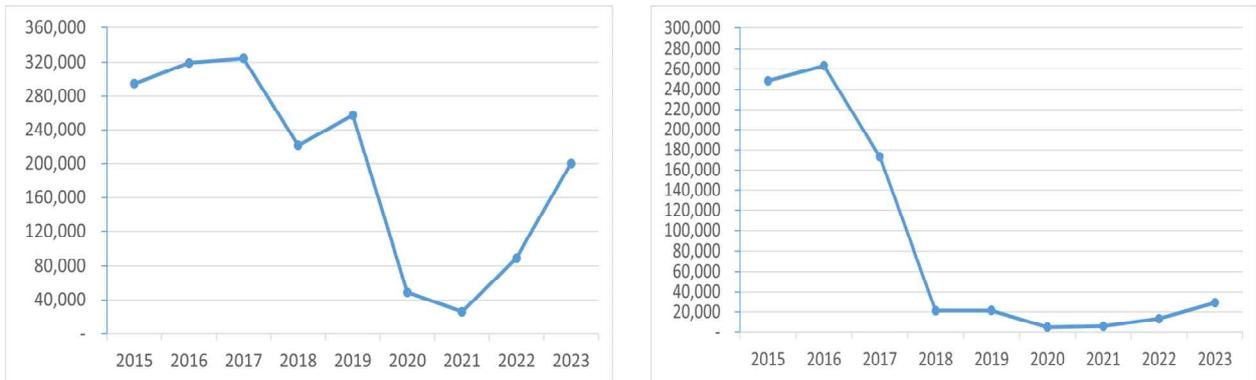
2) 「국정원 “北, 中과 국경개방 점진 추진 중…열차 운행 증편”」(2023. 8. 17.), 연합뉴스

3) 「북한 국경 세관 초소병 방역복 벗어…“국경개방 관련 중대신회”(종합)」(2023. 6. 26.), 연합뉴스

-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8~19년 평균 대중 수입액인 23억 9,534만 달러의 83.6% 수준으로 육로무역이 완전히 재개되지 못한 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치의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UN 대북 제재 강화 전인 2015~17년 평균 대중 수입액 31억 2,786억 달러의 64.1% 수준으로 UN 대 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되고 산업생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
- [대중 수출] 대중 수출은 2억 9,189만 달러로 전년대비 118.4% 증가하였는데, 품목 다변화는 물론 주요 품목의 수출액도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16.9%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월별 수출은 부침은 있으나 2,500만 달러 내외로 안정화되는 경향성을 보임.
 - 코로나19 전인 2018~19년의 평균 대중 수출액 2억 1,417만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수출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가발과 합금철, 전기에너지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년 가발 수출은 1,913톤으로 2018년의 1,974톤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합금철 수출은 2023년 3,206만 달러로 2018년 2,831만 달러보다 많고, 전기에너지도 2023년 2,226만 달러로 2018년 1,139만 달러보다 큼.
 - 북한의 수출은 코로나19보다는 UN 대북제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의 수출 증가는 북한의 대외환 경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였음을 의미함.
- 2020~22년 동안 국경이 봉쇄되어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하여 북한 내 물자 부족 문제가 심화 된 점을 고려하면 2023년 북중 무역은 일시적으로 2018~19년 수준을 상회하였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수출입이 2018~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그림 1. 북중 무역 추이[연도별, 수입(좌), 수출(우)]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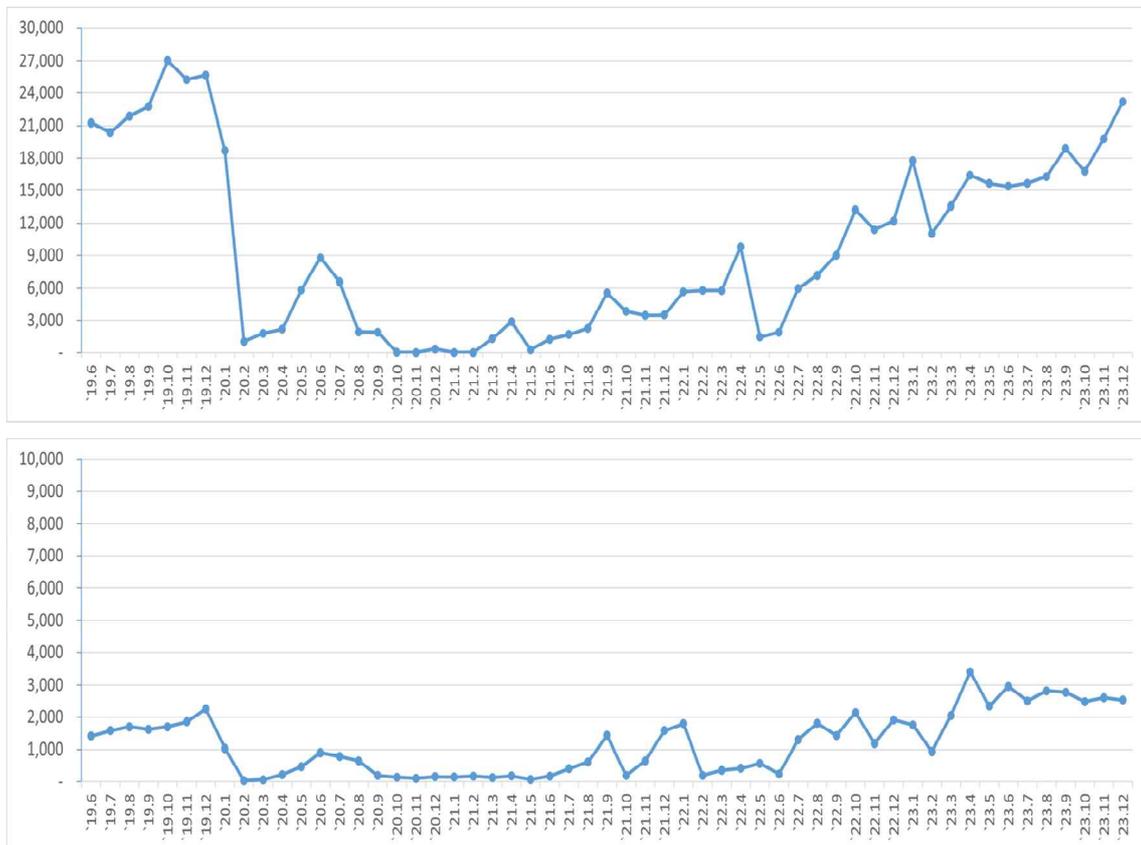
■ 2023년 2사분기부터 북중이 국경 개방에 대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수출입 규모가 더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이 2022년 8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였고, 국경봉쇄가 2년 이상 장기화되어 물자부족 문제가 누적되면서 2023년 3월 왕야진 주북 북한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북중 무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대중 수입은 주북 북한 대사가 부임했음에도 2~3사분기에 정체되었다가 연말에 접어든 4사분기에 소폭 증가하였는데, 4사분기 수입 증가는 주로 비료(HS 3105), 코크스(HS 2713) 등 원부자재와 대두유(HS 1507), 설탕(HS 1701) 등에서 기인

- 대중 수출도 주북 중국 대사가 부임하였던 3, 4월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나, 5월부터 연말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음.
 - 대중 가발·가수염·속눈썹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1,900만 달러 이하로 유지되었는데, 수출의 경우 UN 대북제재의 감시가 특히 심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수요 혹은 협조가 필수적임.
 - 만약 북중 관계가 원만하였다면 북한의 임가공 품목의 종류와 수출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5월 이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종합하면 북중 수출입이 2사분기부터 크게 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진 점, 북러 관계 개선이 전승철(7월)을 계기로 급진전된 점, 왕야진 중국 대사가 2023년이 아닌 2024년 북중 수교 75년을 계기로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9월)한 점 등을 고려하면 4~5월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가 조정기에 접어들었거나,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전면 국경 개방을 하지 못하면서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2019~23년 월별 대중 수입(상), 수출(하) 추이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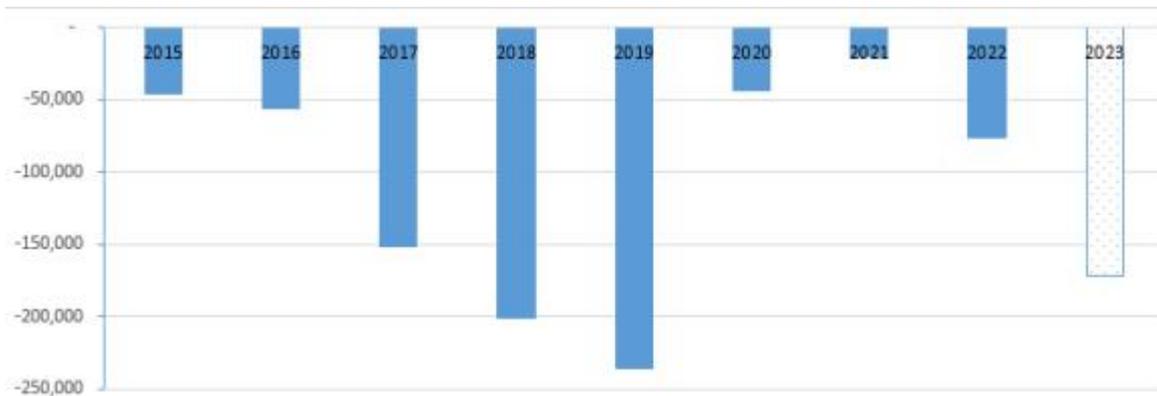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상품수지] 2023년 상품수지는 -17억 1,161만 달러로 전년 -7억 6,036만 달러 대비 125.1% 악화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
 - 2023년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대북제재 강화기보다는 개선된 수준으로 이는 대중 수입이 대북제재 강화기 수준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UN 대북제재 강화기 이전(2015~16년) 연평균 상품수지 적자: -5억 1,008만 달러
 - UN 대북제재 강화기(2017~19년) 연평균 상품수지 적자: -19억 5,881만 달러
 - 코로나 국경봉쇄기(2020~21년) 연평균 상품수지 적자: -4억 6,810만 달러
 - 2023년 상품무역수지 적자폭은 북한의 외화 수급 상황(2020~22년 북한이 가상화폐를 최소 12억 달러, 최대 70억 달러 탈취한 것으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⁴⁾ 북한경제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그림 3. 북한의 상품무역수지(연도별)

(단위: 만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다. 교역 품목 및 산업 분석

1) 대중 주요 수입품목

- [품목] 202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벌이를 위한 임가공 원부자재(섬유·의류 원부자재), 민생용품(쌀·설탕), 농업용 자재(비료), 건축자재⁵⁾를 주로 수입하였음.
 - [1, 4, 7순위: 임가공 원부자재] 가발·가수염·속눈썹 임가공을 위한 사람 머리카락(HS 6703)이 1만 6,003만 달러 수입되어 총수입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4순위), 메리야스편물(7순위)이 순위권에 함께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산업이 섬유·의류·가발 임가공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23), *Annual Reports(S/2023/171)*; Chainalysis(2023), "2022 Biggest Year Ever For Crypto Hacking with \$3.8 Billion Stolen, Primarily from DeFi Protocols and by North Korea-linked Attackers."

5) 건축자재란 플라스틱 바닥갈개(HS 3918), 도자재 판석과 세라믹(HS 6907), 조명기구(HS 9405), 가구와 부품(HS 9403), 합판, 베니어판(HS 4412), 섬유판(HS 4411), 플라스틱 건축용품(HS 3925), 벽지(HS 4814) 등을 합산한 것임.

- [2, 6, 8순위: 민생용품] 대두유(HS 1507, 콩기름) 수입이 9,004만 달러(총수입의 4.5%), 사탕수수당(HS 1701, 설탕) 수입이 6,933만 달러(총 수입의 3.5%), 의약품(HS3004) 수입이 2.9%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북한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주요 수입 민생 품목임.
 - 주요 식료품 중 밀가루 수입은 4,215만 달러(총수입의 2.1%)로 11위를 차지하였음.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통제와 비타민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 [3순위: 비료] 복합화학비료(HS 3105) 수입이 8,066만 달러(총수입의 4.0%, 14만 1,108톤)를 기록하여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2018년 26만 2,012톤)을 수입하였는데, 이례적으로 7~10월 중에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5순위: 쌀] 쌀(HS 1006)이 7,681만 달러(총수입의 3.8%, 16만 4,326톤) 수입되었는데, 2017~18년 연평균 총 수입량 3만 9,556만 톤의 4.2배에 해당되어 식량 부족 문제와 양곡전매제 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쌀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언론에서는 북한이 2023년 6월까지 5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2022년 7월~2023년 12월 동안 23.8만 톤의 쌀을 수입하여 목표치의 약 50%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 단기간 최대 수입량으로 2024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 필요
- [10순위: 건설자재] 플라스틱 바닥 깔개(HS 3918) 수입이 4,882만 달러(총수입의 2.4%)로 10위, 도자제 판석과 세라믹(HS 6907)이 4,053만 달러(총수입의 2.0%)로 13위, 가구와 부품(HS 9403)이 3,092만 달러(총수입의 1.5%)로 15위, 조명기구(HS 9405)가 1,794만 달러(총수입의 0.8%)로 22위, 합판·베니어 패널(HS 4412)이 1,341만 달러(총수입의 0.7%)로 27위 등 건설 관련 품목의 수입이 1억 5,162만 달러로 총수입의 7.6임.
- 10순위 밖으로는 밀가루, 고무타이어, 건축용 자재, 식료품(팜유·밀크·크림) 등의 수입이 이루어짐.

표 1.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상위 10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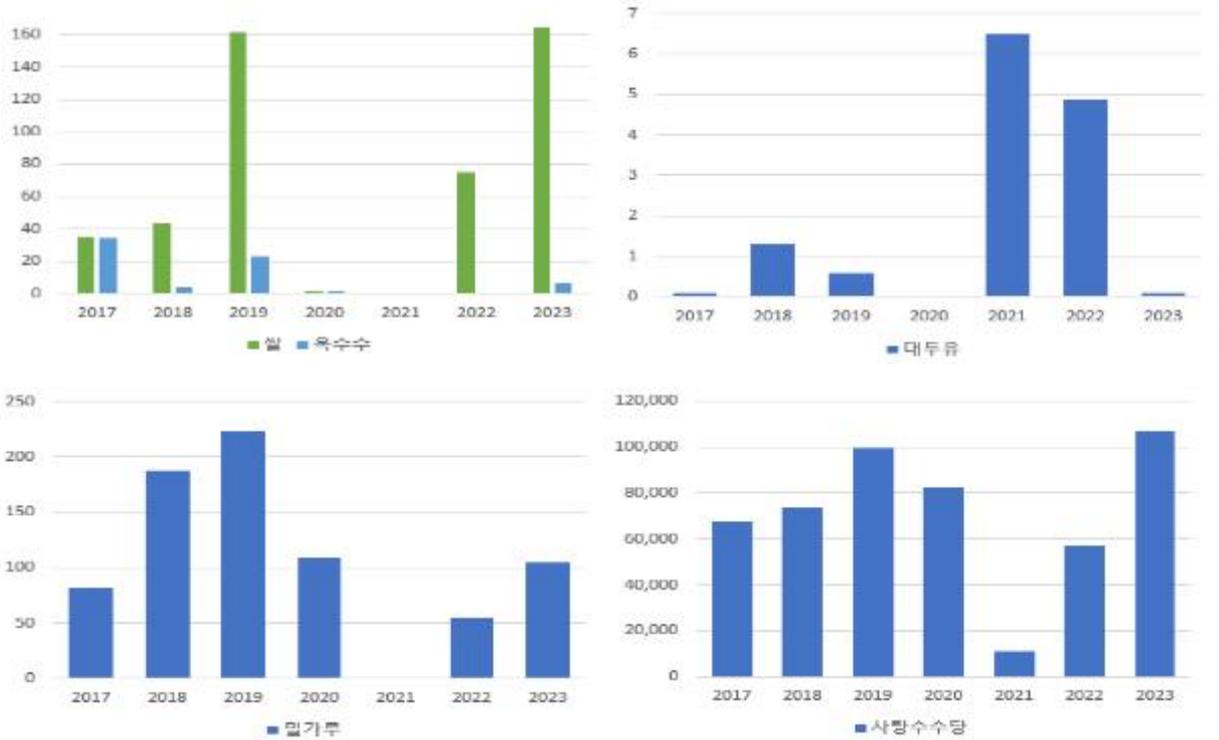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명	HS4	금액	비중	
				2022	2023
1위	사람 머리카락	6703	16,003	0.8	8.0
2위	대두유(콩기름)	1507	9,004	5.5	4.5
3위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	3105	8,066	0.0	4.0
4위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5407	8,045	3.5	4.0
5위	쌀	1006	7,681	3.7	3.8
6위	사탕수수당(설탕)	1701	6,933	3.1	3.5
7위	메리야스편물	6006	6,613	3.7	3.3
8위	의약품	3004	5,868	4.6	2.9
9위	제조 담배	2403	5,150	2.7	2.6
10위	플라스틱 바닥 깔개	3918	4,882	2.5	2.4
상위 10개 품목 소계			78,245	27.5	30.0
대중 수입 총액			200,350	100.0	10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북한 식료품목 수입 추이(품목별, 최근 6개년)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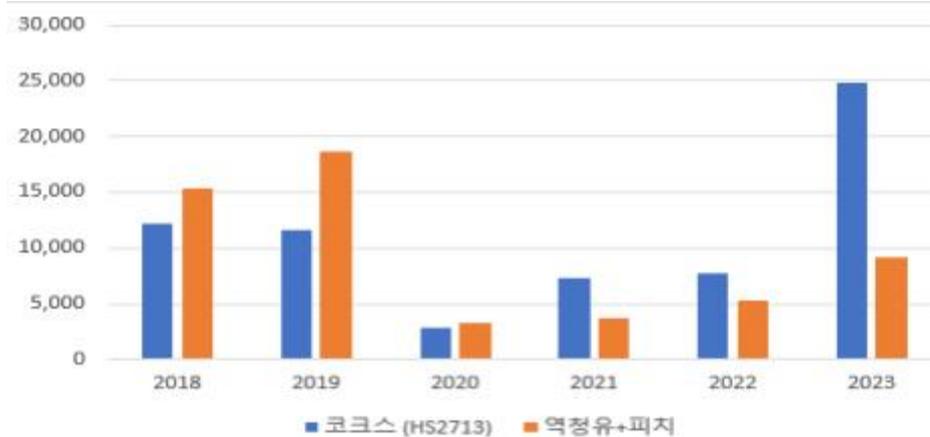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특이품목 주체철⁶⁾ 생산을 이유로 수입을 줄여왔던 코크스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의 증가로 제철 및 금속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코크스 외에 역청유, 피치 등도 모두 코크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중 코크스 수입만 대폭 증가함.

그림 5. 북한의 대중 코크스·역청유+피치 수입 추이(2018~23년)

(단위: 톤)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6) 북한은 1950년대부터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활용한 철 생산(이른바 주체철)을 시도해왔는데, 북한에서 주체철이란 전량 수입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북한에 풍부한 무연탄을 활용하여 만드는 철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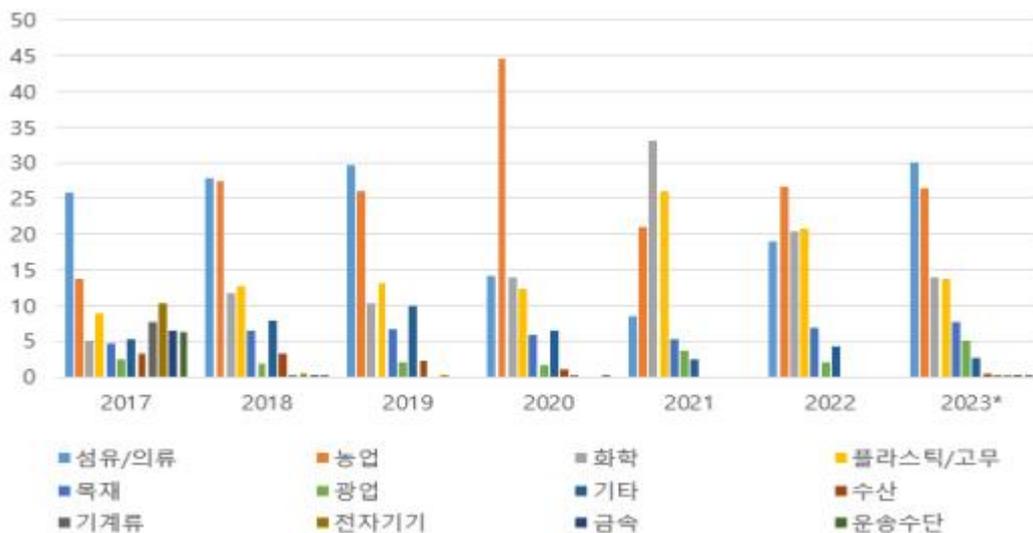
2) 수입 산업별 분석

■ [산업별 분석] 산업별 수입액은 섬유·의류(30.0%)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농업(26.3%), 화학(14.0%), 플라스틱·고무(13.7%) 순으로 이어졌음.

- UN 대북제재로 전자기기, 기계류, 수산, 금속, 운송수단 등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섬유·의류 비중이 높은 것은 가발 수출과 러시아에 대한 군복 수출, 중국에 대한 의류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의심됨.
- 농업은 북한 당국이 식량난에 대비하는 한편, 양곡전매제를 시행하면서 쌀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화학은 비료 수입(수입 제3위)과 함께 산업용 원부자재로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에틸렌중합체, 유기계면활성제 등이 매달 상위 30위권 이내로 수입되었기 때문임.
- 플라스틱·고무 수입액이 많은 것은 타이어 수입액이 많기 때문인데, 버스용 대형 타이어의 수입액이 많았음.

그림 6. 북한의 산업별 대중 수입 비중(각 연도)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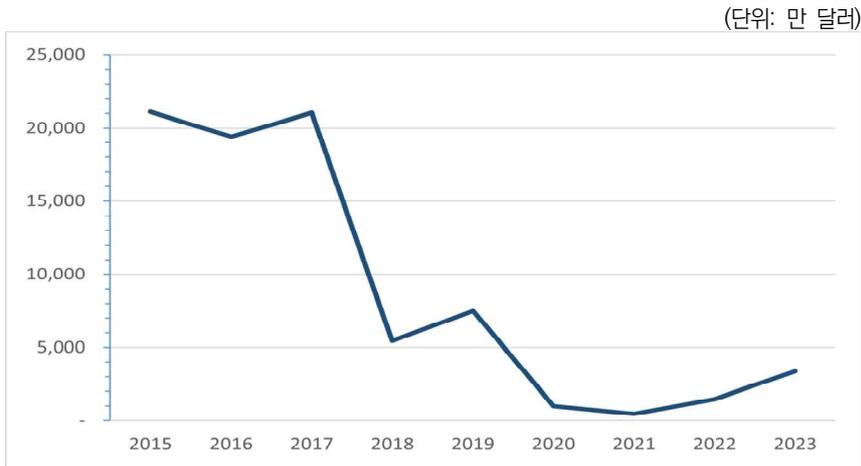
■ [산업활동 추정]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가)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는 2018~19년 대비 약 52.1%에 불과하여 수입의 회복폭(84.7%)보다 낮은 수준임.

- 2023년 북한의 수입이 쌀이나 대두유 등의 민생용품, 섬유와 사람 머리카락 등 경공업 원부자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중화학금속기계 산업은 2018~19년 수준만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로 군사용은 물론 산업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액 분석은 북한의 산업 활동, 특히 중화학금속기계 산업의 재개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7)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공개하는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를 HS 코드와 연계하여 수입액을 산출하였음.

- 2023년 전략물자 수입액은 3,377만 달러로 2018~19년 평균 수입액 6,477만 달러의 약 52.1% 수준으로 이 지표만을 활용하여 북한 산업의 재개 동향을 평가한다면, 2023년 대중 수입액이 2018~19년 동기의 84.7%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의 정상화 정도는 2018~19년의 52.1%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7. 북한의 대중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 추이(각 연도)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3) 대중 주요 수출품목

■ [품목] 노동집약 산업인 가발·가수염·속눈썹이 전체 수출의 57.1%를 차지함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

- [1순위] 가발·가수염, 속눈썹(HS 6704)은 1억 6,674만 달러(총수출의 57.1%) 수출되었는데, 4월 2,305만 달러를 정점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북한의 수출산업이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북한도 추가 수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2023년 5월 중국 세관이 북한산 가발·가수염, 속눈썹 수출액을 통제한다는 보도⁸⁾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때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북한은 가발류 수출 외에는 신규 수출품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음.
- [2, 3, 5순위] 합금철(페로실리콘, HS 7202)이 3,206만 달러(총수출의 11.0%),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HS 2611)이 2,594만 달러(총수출의 8.9%), 몰리브덴광과 암석(HS 2613)이 717만 달러(총수출의 2.5%) 수출되었는데, 이들 품목은 UN 대북제재 저축 논란이 있음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음.
 - 텅스텐은 전구 필라멘트, 금속 절삭 공구, 냉장고 압축기, 군사용 포탄, 탄두, 탄약, 군용 차량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몰리브덴은 금속 절삭 공구, 금속 가공용 장비, 롤러 베어링, 압축기,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됨.

8) 「북한 가발·속눈썹 중국 수출, 5월 32% 급감…北 전체 수출 타격」(2023. 6. 21.), 『연합뉴스』.

- [4순위] 전기에너지(HS 2716)는 북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압록강 수계 수풍댐 등 6개 수력발전용 댐에서 생산된 전기 중 북한 몫을 중국에 판매하고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2,594달러(총 수출의 8.9%) 수출되었음.
- [6순위] 플로트 유리(HS 7005) 수출이 717만 달러(총수출의 2.5%) 이루어졌는데, 이 품목도 2022년부터 신규 수출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 창유리, 출입문 유리, 샤워실 유리, 난간 유리 등에 활용됨.
- [7순위] 탄화물(HS 2849) 수출이 539만 달러(총수출의 1.8%) 이루어졌음.
 - 탄화물은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특정하기 어려움.
- [8순위] 생사(HS 5002) 수출이 441만 달러(총수출의 1.5%) 이루어졌는데, 2022년 대비 월별 수출량으로 는 소폭 하락하였음.
 - 2022년 신규 수출품으로 등장하였으나 가발류 수출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주요 수출품목으로 육성되지는 못하고 있음.
- [9순위]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HS 9108) 수출이 406만 달러(총수출의 1.4%) 이루어졌는데, 이 제품의 원부 자재도 밀무역 방식으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10순위] 인조흑연(HS 3801) 수출이 253만 달러(총수출의 0.9%) 이루어졌는데, 이 품목은 배터리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표 2.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상위 10순위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명	HS4	금액	비중	
				2022	2023
1위	가발, 가수염, 가눈썹	6704	16,674	8.7	57.1
2위	합금철(페로실리콘)	7202	3,206	20.2	11.0
3위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2611	2,594	23.1	8.9
4위	전기에너지	2716	2,226	15.3	7.6
5위	몰리브덴광과 암석	2613	717	10.2	2.5
6위	유리	7005	609	5.0	2.1
7위	탄화물	2849	539	3.3	1.8
8위	생사(견, Raw Silk)	5002	441	6.6	1.5
9위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9108	406	1.3	1.4
10위	인조흑연	3801	253	0.3	0.9
상위 10개 품목 소계				94.0	94.8
대중 수출 총액			29,189	100.0	100.0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라. 2024년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방향

- 무역 통계 분석에 따르면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섬유·의류 밀무역 재개, ② 여름 홍수에 대비한 관개수로 공사, ③ 양곡전매제 시행, ④ 살림집 건설, ⑤ 북러 군사 협력과 전쟁 물자 생산으로 확인됨.
- 국경개방으로 섬유·의류 밀무역이 재개되면서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 UN 제재에 대비한 신규

수출품 육성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

- 의류 수출과 함께 가발·가수염·속눈썹 수출이 증대되었고, 수출정책은 신규 수출품목(비단(견), 플로트 유리) 육성보다 전통적인 수출품목(의류·가발, 광물제품(합금철, 텅스텐, 몰리브덴))으로 회귀하였음.
-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관개수로 공사를 위해 플라스틱 배관·관 수입이 대폭 증가
 - 자연재해 중 북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수인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대규모 관개수로 공사를 해왔으며, 관련 기조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식량 부족 사태 예방 및 양곡(쌀)전매제 시행을 위한 쌀 수입이 증가하면서 2023년 쌀 수입량이 최근 10년 동안 연간 수입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
 - 북한 당국은 곡물 유통 경로를 국가가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곡물의 시장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양곡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곡물 수입 수요도 증가하였음.
- 북한 전역에 걸쳐 살림집(문화주택)이 건설되면서, 플라스틱 바닥 깔개, 합판·베니어판, 조명기구, 가구, 도자제 판석과 세라믹 등의 건축자재 수입이 증가
- 2023년 코크스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내에서 철강 생산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북한의 코크스 수입은 최근 6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1만 2,244톤의 2배인 2만 4,855톤을 기록
 - 코크스는 제철 과정에서 촉매역할을 하는 필수제로 최근까지 북한은 주체철을 생산하겠다고면서 수입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음.
 - 연간 1만 톤 이하의 수입이 이루어지던 것이 2023년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산업생산 활성화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 2024년 북중 무역 전망과 시사점

■ 2024년 북한의 대중 무역의 향방은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2020~22년 코로나 국경봉쇄 기간 동안 수출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UN 대북 제재와 국경봉쇄 영향으로 물류비용이 대폭 증가한 상황
- 때문에 2024년 북중 관계 개선 여부와 국경 전면 개방 여부가 북중 무역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
 - 북한은 2023년 국경통제를 완화하고 수입을 확대하여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수출품목 육성보다는 기존에 강점을 가진 임가공 품목과 단순가공 광물에 집중하였음.
 - 대중 수출은 중국이 UN 대북제재 저축 여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북한의 임가공과 단순가공 광물의 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줄지 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될 것임.)

9)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임가공(가발·가수염·속눈썹) 품목과 단순가공 광물(합금철, 텅스텐, 몰리브덴, 탄화물 등)은 UN 대북 제재에 직접

- 또한 현재 북 → 중 육로무역이 중단된 상태인데, 양국이 육로 무역 재개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북한의 대중 수출의 증가폭을 결정할 것임.
- 대중 수입은 북한의 국경 개방 시점, 중국의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 여부의 영향을 받을 것임.
 - 북한은 비공식무역(밀무역) 형식으로 수입이 금지된 운송수단, 기계설비, 전자제품 등의 수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물류비용 증가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수입을 지속하고 있음.
 - 현재 국경을 부분적으로만 개방 중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 국경을 전면 개방하느냐에 따라 대중 수입의 추가적인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임.
 -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밀무역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밀무역의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므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비공식 무역도 감소할 수밖에 없음.

■ 2024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 모두 2023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북중, 북러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개선될 경우에 한해 수출입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음.

- 대중 수입은 매달 약 1억 7,0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매달 약 3,000만 달러 수준으로, 연간 대중 수입은 23억 5천만 달러, 대중 수출은 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23년 2사분기부터 조정기¹⁰⁾에 접어든 북중 경제 관계가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2024년에도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될 것이며, 중국은 북중러 공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그리고 그와 맞물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 귀환과 대체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는 국제사회의 감시가 심해 북중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2024년 북한의 국경 개방은 현수준에 머물 개연성이 크며 북한의 대중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임.
 - 결과적으로 북한이 현재 국면에 적응하면서 소폭으로 수출입을 늘리는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판단
- 다만 북러 군사협력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대중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북한은 군사 무기 및 군용품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의 대러 무기 및 군사용품 수출이 지속될수록 중국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도 증가하여 대중 수입이 예상보다 더욱 커질 것임.

■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이나 북한이 1~2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상품수지 적자는 2023년과 유사한 16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외화보유 추정치(2021년 말 약 70억 달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상품수지 적자폭은 북한이 1~2년 동안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저축되지는 않으나 다툼의 소지가 있고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분쟁 가능성도 있어 북한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의 협조나 묵인이 필요함.

10) 북중 정치 외교 관계와 경제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관계는 2023년 2사분기부터 추가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중 관계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서술한 것임.

■ 북한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대중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아직까지는 산업생산 회복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 분야 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대중 수입이 더욱 증가하면서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 엔데믹에 진입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가 더디고 전자 제품과 생산설비 등 핵심 제품의 수입이 불가능해 산업생산 정상화의 한계는 명확함.
- 이미 코크스 수입 증가 사례와 같이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제철, 금속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북러 군사협력의 폭이 커지고 장기화될수록 이에 따른 생산 파급 효과가 북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소규모라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UN 대북제재 금지 품목인 기계설비와 핵심 전자기기, 원부자재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산업생산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음.

■ 그러나 북러간에는 경제협력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경험 확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1980년대까지 북러는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코메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양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사업이 거의 없어 협력의 폭이 제한적임.
- 현재 러시아가 전쟁 중인 관계로 무역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북 → 러 무기, 러 → 북 옥수수, 밀 등이 주로 교역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무기를 제외하면 북한 전체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무역 외에 극동러시아에 북한이 농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북한이 극동러시아의 농장에 투자할 농업용 종자, 원부자재(비료, 농약)를 충분하게 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극동러시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물류비용도 만만치 않아 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 현재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가 3,000여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좋지 않아 북한 노동자를 흡수하는 폭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해외노동자 20만 명 파견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전쟁으로 러시아의 남성 노동인력이 급감하면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러시아가 북한에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루블화의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고 수요처도 러시아로 국한되어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루블화 결제는 경제적 실효성이 없음.
- 때문에 2024년 북러 협력은 군사협력에 국한하여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며,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더라도 일회성 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북중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증진이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 요소이며, 북러 관계는 아직까지 군사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고 대내외 여건상 경제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 당장 북러 협력이 북중 협력을 대체하기 어려운데, 북중 경제협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북러 경제협력은

아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UN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함.
- 또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파견 노동자 귀환 문제, UN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중국인의 북한관광 재개 등 북중 간에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이어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음.
-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이를 계기로 북한이 북중 간 경제협력 재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양절(4. 15.), 전승절(7. 27.), 정권수립 기념일(9. 9.), 노동당창건일(10. 10.) 등을 계기로 국경통제 완화, 북중 무역 확대, 대외 경제협력 증진 등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KIEP**